

## 남·녀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과 그 차이

- 경북지역 논매기 소리와 삼삼기 소리를 중심으로

남녀의식을 살펴본 실험적 논의 -

이정아\*

<차례>

1. 들어가며
2. 논매기 소리에 나타난 남성의식
3. 삼삼기 소리에 나타난 여성의식
4. 남·녀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과 그 차이
5. 나가며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남성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과 여성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을 비교 대조하여 기존 논의가 포착하지 못한 남성 의식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남녀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논의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한국 민요대전』 경북편에 수록된 논매기 소리와 삼삼기 소리를 대상 자료로 한정하여 이들이 담고 있는 사설의 주된 내용을 정리했다. 논매기 소리가 주로 노동현장의 고통과 노동자의 고달픈 심정을 담고 현실적인 소망을 표현하는 반면 삼삼기 소리는 노동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허구적 상황을 노래에 담고 있어 비현실적인 일면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자신이 처한 타자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노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이 가진 의식의 차이는 그들이 속한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남성이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해 가면서 노래를 통해 드러내야 할 저항이나 갈등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향을 띠는 반면 여성은 현실적 실리나 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노래로 재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남성 의식, 여성 의식, 논매기 소리, 삼삼기 소리, 지배이데올로기, 허구적 상상력

## 1. 들어가며

민요가 지닌 가치 가운데 놓칠 수 없는 것은 노랫말이 담고 있는 문학적 성이며 자기 표출의 기능이다. 민요 그 가운데서도 여성이 부른 민요는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지닌 대상으로 이른 시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사설이 담고 있는 다채로운 내용과 기능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최근 여성 민요에 대한 연구는 노랫말이 담고 있는 화자의 의식이라든가 정서적 양상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요가 생활의 현장에서 불리는 삶의 노래라는 점에서 당연한 추세이며 노래하는 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행 상황 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여성은 조선 후기에 강화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며느리 혹은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야 했다. 가부장 사회가 용인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며느리 혹은 아내로서의 목소리였고 주체적 자아로서 공적인 목소리는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특별히 하층 여성들에게는 번듯한 이름조차 붙여지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누구 집 며느리, 누구 집 아내라는 이름의 ‘~댁’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 그들에게 노래는 유일한 자기 표출이었고 살아있음의 확인이었다.

그동안 이러한 여성 민요의 자기 표출과 정서적 기능에 주목한 텍스트 읽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과 달리 남성 민요에 대한 연구

는 이런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성들이 불렀던 노래들은 대체로 단조롭고 여성 민요에 비해 사적 자기 표출이 덜한 기능이 강조된 노래라는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성 민요에도 사적인 감정의 표출과 자기 인식의 표현을 담아낸 노랫말이 존재한다. 어사용과 같은 노래의 경우 남성이 부르는 노래이지만 다른 노래와 달리 자기 인식과 그로인한 탄식이 담겨있다.<sup>1)</sup> 하층민으로서 삶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탄식하는 남성의 목소리는 여성 민요의 그것보다 오히려 절절하며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사용은 남성 민요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요는 아니어서 보다 보편적인 남성 노동요에 나타난 남성 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승만은 남성 들노래에 나타난 작업의 지시와 독려, 단합과 협동의 강조, 풍년의 예측과 기원, 연정적 표현과 피로의 이완, 생활감정의 배설과 순환, 충효와 사회 윤리적 교술이라는 내용적 특징에 주목한 바 있으며<sup>2)</sup> 박미리는 남성과 여성 노동요에 나타나는 차이를 노동에 대한 태도, 성, 사랑, 님에 대한 묘사의 차이, 적대의식의 차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 본 바 있다.<sup>3)</sup> 최원오 역시 남성 노동요가 풍요 기원, 윤리적 지향, 노동과정을 담고 있으며 비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sup>4)</sup> 그러나 이들 논의는 남성 노동요 노랫말에 나타나는 남성의식에 주목한 논의라기보다는 남성 민요의 대표격인 들노래 전반에

1) 이정아,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2, 321-350면.

2) 나승만,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9-153면.

3) 박미라, 「노동요에 나타나는 여성의 체험과 자기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41-78면.

4) 최원오, 「민요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의 표현」,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119-120면.

관한 고찰이거나 여성의 자기 체험과 인식을 추출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남성 민요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거나 민요의 전반적인 특징을 개괄하는 논의로서 남성민요를 다루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여성이 불렀던 길쌈노래처럼 보편적인 노동의 현장에서 불렀던 남성 노동요를 통해 드러나는 남성 집단의 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여성 노동요와 비교·대조해보는 작업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기존에 연구를 통해 드러난 남성 노동요 노랫말의 특징은 대부분 남성들이 주로 했던 작업이 공동의 작업이었고 이러한 공동작업을 통해 불려진 노랫말들은 주로 작업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노동에 대한 기쁨과 자긍심이 나타나며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삶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 논의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남성 노동요에 나타나는 비판의식이나 적대의식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앞서 남성 노동요의 특징이라 언급한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본고가 눈여겨보는 것은 남성들 역시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입장으로 타자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노동의 결실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전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고려 소악부의 한역화 된 자료에서 보이는 사회 비판의식이 노랫말에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 남성 노동요가 여성 노동요처럼 다양한 말하기의 방식을 동원하여 자기 신세를 털어 놓치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랫말을 통해 사적인 자기 심정이나 처지를 드러내는 말, 갈등의 말, 욕망의 말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에 주목하다보면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은 노동 현장에서 해야 했던 작업의 독려라든가 자긍심보다는 여성 노동요가 보였던 타자적 정체성에 대한 울분이나 탄식 혹은 저항의식과 유사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려는 것

이다.

물론 모심기 소리와 같은 경우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 앞서 지적한 개별적인 양상을 포착하기 어렵지만 논매기 소리와 같은 노래는 사정이 좀 달라 보인다. 논매기라는 작업의 특수성이 말해주듯 길고 지루하고 불규칙적인 노동이라는 점에서, 한번에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하는 작업이며 여름의 띄약벌에서 해야만 하는 악조건 속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내재된 갈등과 욕망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노동요라고 생각한다. 또한 논매기 소리는 농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불리온 남성들의 노래이고 남성 노동요의 본령이라 칭할만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고는 논매기 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남성 민요의 내용적 특징을 근거로 남성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여성 노동요인 삼삼기 소리에 나타난 여성의식과 비교·대조하여 이들이 공유하는 지점과 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민요가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삶의 노래라는 점을 입증하는 접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대표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인데 경북지역의 노동요는 이런 작업에 적절성을 지닌다. 경북 지역은 여성 노동요와 남성 노동요가 모두 풍부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불려진 노래는 그간 논의가 활발했던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의는 한국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북편<sup>5)</sup>에 수록된 남녀 노동요 가운데 논매기 소리와 삼삼기 소리를 각각 정리하여 그 노랫말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남녀 노동요에 나타나는 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

5) 한국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편 해설집』, 1995, 3- 80면.

존에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남성의식의 내적 갈등을 찾아냄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불렀던 노동요가 담고 있는 민중적 정서와 의식이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화 과정에 의해 변주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논매기 소리에 나타난 남성의식

김택규는 경상북도의 민요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생산 촉진의 기능과 유희 오락의 기능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어사용과 벼틀노래가 한의 노래이고 보리타작과 망깨소리가 신과 흥의 노래라 한다면 논매기 소리는 한과 신, 흥이 조화된 노래라 하였다.<sup>6)</sup> 김현선 역시 삶을 아파하지만 부정하지 않는 노래로서 논매기 소리가 지니는 비정형성과 풍작 염원의 주술적 기능을 지적한 바 있다.<sup>7)</sup>

논매기 소리는 논농사가 시작되면서 불린 가장 오래된 남성 노동요 가운데 하나이고 사설이 정형화된 모심기 소리에 비해 노랫말이 일정한 형식을 가지지 않은 비정형의 노래이다.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형식을 구가할 뿐만 아니라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논매기의 노동의 과정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는 사실 편성의 양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민요대전』 경북편에 수록된 논매기 소리는 모두 49편<sup>8)</sup>으로 이들

6) 김택규, 「경상북도 민요의 문화 사회적 기능」,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편 해설집』, 1995, 21-25면.

7) 김현선, 「경상북도 민요의 사설적 특징」, 앞의 책, 43-38면.

8) 대구 5편, 경산시 1편, 고령군 2편, 구미시 1편, 군위 1편, 김천시 2편, 문경시 2편, 봉화군 3편, 상주시 5편, 성주군 3편, 안동시 2편, 양양군 1편, 영주시 2편, 영천시 3편, 예천군 3편, 울진군 1편, 의성군 4편, 청송군 1편, 칠곡군 2편, 포항시 1편.

노랫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9)</sup>

- 1)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노동현장의 고통의 담은 노랫말
- 2) 님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담은 노랫말
- 3) 청춘이 지나감을 탄식하며 노동하는 현재적 상황을 탄식하는 노랫말
- 4) 작업을 지시하고 독려하는 노랫말
- 5) 어사용과 같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노랫말
- 6) 농부로서의 자긍심과 기쁨을 표현하는 노랫말

선학들은 남성 노동요가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논의를 주로 개진한 바 있으나 실제 자료를 통해 살펴 본 논매기 소리 속에 등장하는 남성의 목소리는 기쁨이나 성취감보다는 고단한 삶의 비애,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 혹은 님과 이별한 처지로서 느끼는 외로운 심정, 힘들게 일하느라 청춘을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회한 같은 정서적 내용들이 주로 발견되었다. 이는 논매기라는 노동 자체가 가지는 작업의 고단함과도 연관시킬 수 있겠지만 작업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남성들 역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타자적 상황을 탄식하고 이것을 표출함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업의 단합과 독려를 언급하는 사설이 많을 뿐이지 그들의 노래 역시 본질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삶이 가져다준 불만이나 비애를, 탄식과 하소연을 노래로 대신하고 있다고 보인다.

9) 이들 내용을 편수 별로 정리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설이 노래 한 편 안에 공존하는 양상이 잦은 탓이다.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해낼 수 없는 것이 논매기 노래의 내용상 특징이기도 하다.

에이/ 에이  
 에이요오야 오이사아 에이요후요  
 에이 유월 농부 칠월 신선 우리 농부가 너무 디데이  
 에이요오야 오이사아 에이요후요  
 에이 칠팔월을 들어가며는 금년 가을 추수하시에  
 에이요오야 오이사아 에이요후요  
 에이 바늘같은 이내몸이 태산같은 짐을 지고  
 에이요오야 오이사아 에이요후요  
구슬같은 두땀이 팔죽거치도 쏟아지네<sup>10)</sup>

긴소리라고 불려지는 위 노래는 선소리꾼이 북을 치며 사설을 엮어 나가면 뒷소리꾼이 논을 매면서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엮여지고 있다. 독창자가 엮어내는 노랫말을 살펴보면 칠월 신선, 금년 가을 추수 등 농사하는 이들의 자긍심과 긍정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노랫말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곧이어 ‘바늘 같은 이내몸이 태산 같은 짐을 지고 구슬 같은 땀이 팔죽같이 쏟아진다’라는 노동 현장에서 펼쳐지는 농사하는 이의 고통스러운 육체적 고통에 대한 노랫말이 표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설의 진행 방식이 지금 좀 고생스럽더라도 추수할 때는 신선같이 아내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의 진행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뒷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실이다. 지금 여기에서 노동하는 이가 느끼는 육체적 고통은 결국 미래에 대한 보장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것이며 앞서 제시되고 있는 긍정적 전망은 결국 현재의 고통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논매기 소리에 나타나는 농부로서의 긍정적 자기 암시와 환기는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자기 인식이라기보다

10) 대구 논매기 소리 긴소리, 앞의 책, 64-35면.

는 지금의 고통을 견디어내기 위한 심리적 위안을 위한 암시이자 자기 위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상사디여 상사디여  
이 논바닥에 논배는 사람에 상사디여  
오월 농부 팔월신선 에이요 상사디요  
동해동상 돋은 해는 에이요 상사디요  
일락서산에 넘어가네 에이요 상사디요  
불쌍하고 농부들이요 에이요 상사디요  
가련하고 슬프구나 에이요 상사디요  
이 논바닥에 추골해서야 에이요 상사디요  
구시월이며 추수해서 야 상사디여  
이러이타 흥해 큰 자아요 상사디여  
고기도 사고 술도 묵고 에이요 상사디요<sup>11)</sup>

위에서 제시한 자료 역시 불쌍하게 농부 된 자신들의 처지가 가련하고 슬프다는 탄식과 함께 이 논에서 추수를 해야 고기도 먹고 술도 먹는다는 현실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자료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즉 이 논바닥에서 추수를 해야만 고기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술도 사서 먹을 수 있다는 현실의 상황이 제시됨으로써 현재의 고통이 생존을 위해 견디어야 할 상황, 받아들여야 할 현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현실적 필요에 의해 주어지는 노동이 가져오는 육체적 고통과 탄식만으로도 노래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바로 어사용 사설을 논매기 소리로 가져와 부르는 경우가 그러하다.

11) 포항 논매기 소리 상사소리, 앞의 책, 679면.

에이여 우 상사디여/ 에이여 우 상사디여  
어떤사람은 팔자 좋아/ 에이여 우 상사디여  
고대 광실 높은 집에/ 에이여 우 상사디여  
사모에다 핑경 달고/ 에이여 우 상사디여  
들민한들 날민 한들/ 에이여 우 상사디여  
이내 팔자 잘못타서/ 에이여 우 상사디여  
먹고나면 땅만파고/ 에이여 우 상사디여  
자고나도 땅만파네/ 에이여 우 상사디여<sup>12)</sup>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 호사스럽게 살지만 이내 팔자는 잘못 타고 나서 먹고 나면 땅만 파고 자고 나도 땅만 판다는 자조적인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자료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현재 직면한 노동 현장의 고통스러움이 표현되고 있으며 낙관적이고 미래적인 전망도 없이 늘 먹고 나면 자고 나면 땅만 파야 하는 현실이 한 없이 원망스럽다 말하고 있다. 자신이 타고난 처지가 이러한 고달픈 현실을 가져온 것이며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는 자조적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논매기 노동 자체가 가지는 지루하고 힘겨운 노동 상황이 일하는 이들의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자기 인식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강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열린 일터에서 다같이 일하며 부르는 노동요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탄식의 양상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남성 노동요가 담은 남성의식의 중요한 일면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민요와 달리 남성들의 민요가 노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설을 주로

12) 고령 논매기 소리 상사소리, 앞의 책, 158-159면.

담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실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낙관적 미래나 희망에 넘치는 삶이 아니라 그나마 밥술이라도 먹으려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필요와 인식이 담겨 있다.

민요가 생활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이고 지배계급이 부르던 노래와 대척점에 있는 노래라고 할 때 민중이 부르던 노동요에 담긴 의식은 현재적 삶에 대한 긍정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하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순응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거역할 수 없으니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순응해서라도 자식을 먹이고 부모에게 공양해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순응 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채록된 논매기 소리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갖게 된 의문 가운데 하나는 한역화 된 시에서 엿보이던 상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현존하는 자료에서 과연 어떻게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는가였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은 비판과 저항의 말보다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여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노랫말이 대부분이다.<sup>13)</sup> 신분제가 철폐되고 근대화를 거쳐 계급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살게 된 남성들이 가지게 된 자연스러운 의식의 변화라고 하기엔 어딘지 석연치 않다. 더욱이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오늘날 상황을 보자면 노동요가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나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항변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런 비판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노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채록

13) 성주 논매기 소리에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주인 양반 어디 갔노”라는 사실이 등장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인 비판의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노동 현장의 고달픔을 알아달라는 항변 정도로 해석해야 할 듯 하다. 앞의 책, 359면.

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검열 장치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날 불려지는 대부분의 논매기 소리가 노동의 현장에서 불린 살아있는 노래라기보다는 재현과 복원의 과정을 통해 재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세 편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래를 통해 벗어날 수 없는 농사꾼의 처지와 그들의 심정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 제시한 자료는 시집살이 노래가 보이는 탄식이나 어사용의 탄식과 다를 바가 없다. 기존 논의가 남성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으로 설명했던 노동의 긍정, 가부장으로서의 자긍심보다는 벗어날 길 없는 고된 노동자로서의 처지와 고통, 경제적으로 궁핍한 현실,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지나간 젊음에 대한 탄식 등 말하고 싶은 속마음, 드러내고 싶은 속내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내용상 특징을 통해 드러나는 남성 의식의 일면과 함께 논매기 소리에 나타나는 말하기의 양상을 살펴보자면 논매기 소리에 등장하는 화자는 대부분 노래하는 창자와 일치될 보인다. 관용구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노래 속 화자와 부르는 화자는 균열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화자의 일치 현상은 여성 노동요가 보이는 다양한 화자의 등장과는 대조적인데 다양한 말하기의 방식을 원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이 부르던 노래는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마을 내에서만큼은 일정한 사회적 위상을 보장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들이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인 비판 의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순응해야 할 현실, 이념적 당위적 삶에 순응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선택이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검열 장치를 거쳐 나가면서 농부로서의 자긍심, 농사의 중요성에 대한 명분을 대신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상

황을 미화하고 위로하는 은폐와 위장의 말하기로 탈바꿈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3. 삼삼기 소리에 나타난 여성의식

남성 노동요의 대표적인 논매기 소리와 견줄 수 있는 여성 노동요는 삼삼기 소리가 아닐까 싶다. 삼삼기 소리는 물레질하며 부르는 소리, 실제 베를 짜면서 부르는 소리 등 다양한 노동 과정을 폭넓게 포괄하여 다룰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삼삼기 소리라고 명칭 되어진 자료에 한정하여 노래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통해 나타나는 여성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삼삼기 소리는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부르는 집단 노동요이고 길고 지루하며 불규칙한 노동 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논매기 소리에 대응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한국민요대전』 경북편에서 발견되는 삼삼기 소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정조를 의심하는 오빠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극적 상황의 노래<sup>14)</sup>
- 2) 자신의 서러운 심정을 일인칭 화자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sup>15)</sup>
- 3) 물레 맺은 사랑을 노래하는 서사적 전개의 노래<sup>16)</sup>
- 4) 삼삼기 노동의 현장을 딸의 입장에서 부른 노래<sup>17)</sup>
- 5) 삼삼기 노동의 과정을 드러내는 노래<sup>18)</sup>
- 6) 배우자를 고르는 서사적 전개를 담은 노래<sup>19)</sup>

14) 고령 생금생금생가락지, 앞의 책, 173면.

15) 영덕 삼삼기 소리, 앞의 책, 419면.

16) 영덕 삼삼기 소리, 앞의 책, 422면.

17) 영천 삼삼기 소리, 앞의 책, 487면.

18) 예천 삼삼기 소리, 앞의 책, 513면.

대부분 일인칭 화자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논매기 소리와 달리 노래 속 화자는 특정한 극적 상황의 화자이거나 서사적 상황의 화자로 등장한다.

토연토연 김토연아 지수 밝은 딸 불라꼬  
 열두 담장 뛰 넘다가 쉰 냥 짜리 큰 옷이를  
 반만질러 짜들었네 기머라고 대쳐갔고  
 동해동해 동해뜰에 달귀경 가시다가 갈바람에 찼다 하소.. 이하생략<sup>20)</sup>

관아에서 잔심부름하던 토연이 지수를 잘 놓는 딸을 보려고 담장을 넘다가 옷을 찼었다는 내용으로 남녀간의 연애 상황을 담은 노랫말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성과 관련된 연애나 배우자를 고르는 혼인이 모티브가 된 노랫말은 삼삼기 소리에서 자주 발견된다.<sup>21)</sup> 길고 지루한 작업의 현장에 모여서 노래를 부른 여성들이 흔히 신세한탄만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이 이러한 노동의 현장에서 부른 노랫말의 내용은 다양했으며 그 가운데는 특히 연애 모티프를 담은 노래가 많다.

하늘우에 한서부야 글씨좋다 소문났네  
 밀양땅에 강수젠이 바느질 좋다 소문났네  
 쌍무지개 선을 둘러 외무지개 진을 달아  
 이주마니 누가 짓노 하거들랑

19) 예천 삼삼기 소리, 앞의 책, 526면.

20) 앞의 책, 422면.

21) 서사민요라고 칭하는 여성민요 가운데 이러한 자료가 많다. 조동일의 『서사민요연구』에 제시된 유형, 이정아의 『서사민요연구』에서 정리한 여성민요를 보면 이러한 유형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이선달네 만팔애기>, <강실도령>, <강선부와 강처자> 등,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3-428면, 이정아, 『서사민요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3, 1-93면.

봉줄새라 우리 누님 잉길새라 지었다 하소  
이하생략<sup>22)</sup>

위 노래는 서사적 전개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배우자를 정하는 서사적 과정이 엮여지고 있다. 밤을 새어가며 길고 지루한 삼삼기를 할 때 불렀다는 위 노래는 논매기 소리의 노랫말과는 달리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민담이 제시하는 꿈꾸는 현실을 대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노래 속 화자는 노래를 부르는 창자와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래 속 화자의 말을 빌려서 창자가 서술자 목소리를 내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일인칭 화자를 가장한 서술자 시점의 노래는 여성 민요에서 자주 발견되는 목소리 내기의 방식이기도 하다.

물론 삼삼기 소리 가운데는 노동 현장의 화자 목소리로 삼삼기 노동과정의 주된 내용으로 전개해나가는 자료도 있다.

영월 영천 관솔까지 진보청천 진삼까래  
어와 우리 동무들여 열손 모아 디리치고 나리치고  
울 아부지 관솔 놓고 우리 엄마 밤참하고  
그럭저럭 밤새도록 삼아서로... 중략  
하루종일 매어서로 삼일만에 비를 짜서  
옹천장에 가수가니 옹천놈들 거동보서  
오돈 푼돈 줄라하니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리키도 공을 디려 매여서러 공일 디리 짜는 베를  
어찌 그리 오돈 오피 푼 줄라그노<sup>23)</sup>

---

22) 앞의 책, 513면.

23) 앞의 책, 526면.

위 노래는 삼삼기 소리의 전형적 유형으로 관솔가지에 삼가래를 삶아  
 올을 엮어가는 과정이 제시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  
 어 내다 팔지만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극적 상황이 설정되어 이어져 나가  
 고 있다. 노동의 전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다가 이 노동의 성과물이  
 노동에 비해 헐값에 팔리게 될 것이라는 현실인식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에서 꿈꾸는 현실을 노래한 앞선 자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도 공을 들여서 짜 놓은 베를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사야겠  
 나는 반문을 통해 창자의 심정을 털어 놓는 대목은 이 논에서 추수를 해  
 야 고기도 사먹고 술도 사먹을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논매기 소리의 화자  
 탄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황의 재현 자체가 가상의  
 설정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매기 소리가 담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발  
 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삼삼기 소리를 통해 포착되는 여성 의식은 현실적인 실리나 살  
 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보다는 허구적 상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누군  
 가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  
 다. 물론 실제 삼삼기 소리라고 불리는 자료들은 앞서 제시한 노래보다  
 훨씬 다양한 유형을 확보하고 있고 서사적 전개 방식의 노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 노동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사적 상황을 설정해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을 노래하거나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말들을 재  
 현해내는 노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이 녹록치 않았던 사회적 위상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여성은  
 스스로를 보호하며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의 말로 위장하여 대신하겠다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직접 순응해도 되지 않을 만큼 사회적 위상이나 발언  
 권이 확보되지 못한 여건 속에 살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현실을

체념하거나 순응하여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사회적 권한이나 위상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은 오로지 주어진 현실을 살며 그 현실 속에서 현실 아닌 것을 꿈꿀 수밖에 없는 자유만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 4. 남·녀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과 그 차이

논매기 소리가 담고 있는 주된 사설의 내용은 현재의 작업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현재 김을 매고 있는 내가 고통스럽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내가 외롭고 서러우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수확의 즐거움을 기대하며 일하고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탄식하기도 하고 서럽다 말하기도 하며 힘들다 토로하며 그렇지만 앞으로의 추수를 기대하며 열심히 흥겹게 해보자는 격려도 담고 있다.

그러나 삼삼기 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사설의 내용은 현재의 작업 상황보다는 현실이 아닌 허구적 상황 혹은 현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결코 현실이 아닌 상황으로 재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길고 긴 노동의 시간 동안 이들이 불렀을 노래는 본고에서 살펴본 정도의 한정된 자료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억하는 다양한 노래들이었을 것이다. 노래를 통해 탄식하고 노래를 통해 연애를 꿈꾸고 노래를 통해 누군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보고 또 노래를 통해 숨기고 싶은 내 말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논매기 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남성 화자의 의식은 여성 노동요가 담고 있는 여성의식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기도 하고 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남성 노동요와 여성 노동요가 공유하는 지점은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 자신의 처지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며 거부하고 싶은 현실이다. 반면 이들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노동 현장의 창자 목소리가 노래 속 화자와 일치하면서 현실을 기반으로 한 지극히 현실적인 꿈과 현실적인 삶을 노래하는 논매기 소리와는 달리 삼삼기 소리는 허구적 화자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불가능한 현실, 꿈같은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들의 노래가 여성이 부르는 노래보다 현실적이며 지금 내가 밭 딛고 선 현실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일상의 일을 소망한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만을 꿈꾸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논매기 소리를 부른 남성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남성이라는 성 정체성을 인정받으며 생존했을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남편이거나 혹은 아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 집안의 주체이거나 혹은 주체가 될 잠재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했고 그러한 현실적인 인식은 그들이 불렀던 노동요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버지가 된 화자가 부르는 소리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남편이 되어 부르는 화자의 목소리에는 지나간 젊음을 탄식하고 아쉬워하는 실존적 자각이, 아들이 되어 부르는 화자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팔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녹아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장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탄식하고 그들에게 펼쳐진 고단한 삶을 탄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들은 유가적 지배이데올로기가 미화하고 있는 가부장적 위상의 삶에 안착하도록 포장되기도 한다. 오늘날 지배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과정을 겪으며 전승되어온 다수의 노래들은 검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탄식과 저항과 같은 속내를 통해 진정 하고 싶은 말을 은폐

하거나 위장하는 방식의 말하기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 한 역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남성의 탄식과 울분<sup>24)</sup>은 조선이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한 일면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저항과 순응이라는 상반된 의식은 논매기 소리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니며 민중들에게 불려온 노래 속에, 노랫말의 틈새 사이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틈새 사이에 숨어있는 의식을 찾아내는 작업이 남성 노동요가 담고 있는 진정한 자기 목소리를 복원해내는 작업이며 이전까지의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남성민요에 대한 심층적인 텍스트 해석의 시도일 것이다.

비가 오네 비가 오네 우장입고 눈을 매세  
 에헤소오니 절로 한다/ 오호야 에헤야 에하/ 소오니 절로 한다(후렴)  
 여보시오 농부들아 / 후렴  
 요내 말씀을 들어보소 / 후렴  
 오곡을 어느 누가 내놨는가/ 후렴  
 신농씨가 내놨다네/ 후렴  
 일년농사 지어보세/ 후렴  
 오늘 논은 박두불네 노이라네/ 후렴  
 알뜰이도 매여주세/ 후렴  
 다매였네 다매였네 알뜰이도 다매였네/ 후렴  
 우장벗고 두불론 매세/ 후렴<sup>25)</sup>

24) “참새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날라 가느냐/ 일년 농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늙은이 혼자 가꾸어 놓은 것이언만 /밭의 곡식을 다 먹어 버리느냐” 고려사 <사리화>를 비롯한 고려 시대 소악부로 소개된 한시에서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최철, 『한국민요학』, 연대출판부, 1998, 22-26면, 재인용.

25) 상주 논매기 소리, 앞의 책, 317면.

제시한 노래는 바로 남성의식을 대변하는 농부로서의 자긍심이 담긴 사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동씨가 내린 오곡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은 어딘지 생활이 묻어나는 자연스러움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념적 상투성에 덧입혀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남성 노동요의 진면목을 찾아내고 그 속에 담긴 삶이 묻어나는 남성의 목소리와 의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된 목소리와 그렇지 않는 목소리를 섬세하게 구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면으로 드러내는 자긍심이나 노동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모두 이념화의 과정이라 속단하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겠지만 실제 노동의 현장에서 그들이 고단한 삶과 그 삶을 견뎌내기 위해 불렀던 노래 속에 담긴 속내와 갈등을 찾아내는 일, 삶이 묻어나는 진정성을 담은 목소리를 복원해내는 일은 남성 노동요를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 5. 나가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남성 노동요와 여성 노동요에 나타나는 사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남성 노동요에 나타나는 의식과 여성 노동요에 나타나는 의식을 비교·대조해 보았다. 글의 서두 부분에서 제시했듯이 남성들의 노래 역시 여성의 노래가 담고 있는 타자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지배계급의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삶에 대비된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했고 자고 나도 먹고 나도 땅만 파야 하는 미래적 전망이 없는 삶에 대해 원망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남성 노동요가 담고 있는 노동에 대한 타자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여성들은 노동 행위 자체보다는 그들이 꿈꾸는 이야기 속으로 자신들을 몰입시키는 것으로 현

실의 고단함을 피해가려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하는 자로서의 탄식과 원망은 각자가 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라는 사회적 자아의 반응에 의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현실을 욕망하는 노래로, 도저히 실현 될 수 없지만 꿈꾸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행복한 욕망을 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길을 찾아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대상 자료로 삼은 자료가 경상북도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지만 그동안 남성 노동요가 다루지 못한 남성의 타자적 자기 정체성과 그로 인한 자기감정의 표출을 노래에 담고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남성의 노래가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낙관적 의식을 담고 있다는 기존 견해와 달리 남성들 역시 고단한 그들의 삶을 노래를 통해 표출했고 그 표출된 목소리를 통해 미래적 전망이 없는 자신들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의 노동요와 여성의 노동요가 공유하는 타자적 삶에 대한 자각과 각각 다른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갖게 된 현실 인식의 차이 역시 자료를 통해 설명해 낼 수 있었다.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약자이고 타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남성으로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면서 성별의 차이가 조성했던 사회적 기대에 의해 각각 다른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형성해나갔고 그로 인해 남성이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과 현실적 필요를 욕망하게 되었으며 현실적인 대안조차 불가능했던 여성은 허구적 이야기를 꿈꾸는 욕망을 키워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욕망하는 남성 의식은 꿈꿀 자유조차 허용되지 못한 채 강박 관념으로 살아야 했던 치열한 생존의식이

만들어준 비극적 전망의 구가치럼도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2, 5-574면.
- 나승만,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63면.
- 박미라, 「노동요에 나타나는 여성의 체험과 자기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1-111면.
- 이정아,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8집, 한국고전 연구학회, 2008, 12, 321-350면.
- \_\_\_\_\_, 「서사민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93면.
-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출판부, 1979, 3-428면.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5-570면.
- 최원오, 「민요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의 표현」,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119-120면.
- 최 철, 『한국민요학』, 연대출판부, 1998, 1-319면.
- 한국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편 해설집』, 1995, 3-807면.

ABSTRACT

Consciousness Revealed in Regional Traditional Men's and Women's  
Work Song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 Based on experimental discussions about men's and women's consciousness  
focusing on traditional folk work songs for weeding rice paddy and spinning hemp  
in Gyeongbuk provincial area -

Lee, Jung-A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onsciousness revealed in regional traditional men's work songs with women's ones, so that it could examine into men's consciousness untargeted by prior studies and demonstrate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between men and women as revealed between their regional traditional folk work songs. To meet the goal, the discussions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traditional folk work songs for weeding rice paddy and spinning hemp, which are contained in a CD volume titled Gyeongbuk province in 'the Encyclopedia of Korean Traditional Folk Songs (1991 ~1996).' And this study sought to outline major considerations of narration contained in these work song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aid folk work songs for weeding rice paddy were mainly to reflect pains of hard labor on the field and workers' weary sentiment and express their realistic wishes, whereas the said folk work songs for spinning hemp were mainly to rhyme fictitious contexts without regard to reality of hard labor, revealing unrealistic aspects. But both the former and latter songs share a common point in a sense that they are all based on unambiguous knowledge about objective contexts of poor farm workers on the field. Particularly, it is found that certain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between men's and women's work song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ir respective social environments. That is, men's work songs tend to comply with hegemony ideology and conceal or disguise any resistance or conflict that they could otherwise intend to

reveal through songs. On the other hand, women's work songs tend to employ fictitious imagination far from realistic benefit or ideology and intend to reproduce their dream world in the rhyme of song.

**Key Words** Men's consciousness, women's consciousness, songs for weeding rice paddy, songs for spinning hemp, hegemony ideology, fictitious imagination

논문투고일 : 2009. 10. 18
심사완료일 : 2009. 11. 22
게재확정일 : 2009. 12. 04